

英語英文學科의 教科課程과 教授方法

金 基 弘

(韓國外國語大 英語科)

I. 序 論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경제사정과 산업발달 등 급속도로 번천 발전해 나가는 한국 국내와 국제정세에 따라 영어는 국제 보조어(International auxiliary language)의 역할을 하게 될 만큼 영어 사용자의 수요와 필요성이 날로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現時代가 요구하는 영문학도들의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1970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각 대학의 영어영문학과는 대폭적으로 증과와 증원을 거듭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대량 배출에 이르게 되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각 대학의 영어영문학과는 정원이 평균 40명 내외이던 것이 1980년초부터 급격히 증원됨에 따라 요즘은 영어영문학과는 신입생 정원이 100명이 넘는 학교가 상당수 있는가 하면 150명이 넘는 학교도 꽤 많은 것 같다.

이와 같은 대량배출과 더불어 염려되는 것은 質의 문제이다. 그렇다고 몇 년 전에 비해서 요즘 배출되는 영문학도들의 평균질이 대폭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해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내지 외국 상사들이 요구하는 영어영문학과 출신의 영어 수준과 실제 졸업생들의 영어 실력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대개 영어전공 졸업생들을 선발코자 하는

회사가 요구하는 영어 실력 수준은 原書를 번역할 수 있고 또한 우리 말을 영어로 옮겨 쓸 수 있는 정도, 또는 외국인과 직접 의사소통을 할 수 있거나 실무와 관계되는 사정을 편지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데 이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학생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오늘날 국제 보조어가 되어 버린 영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기능이 골고루 습득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영어영문학과에 들어와서 4년간 영어를 전공으로 배웠는데도 그 결과는 실사회가 요구하는 실용영어 수준에는 실망할 정도로 미흡한 현상을 자주 보게 된다. 학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10~20%에 속하는 졸업생들은 그나마 전공분야 시험에 자신을 갖고 있는 듯 회화나 번역에 전공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실력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나 나머지 학생들은 학점은 다 이수했지만 실사회가 요구하는 실력 수준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영어영문학과 교육실정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다음 몇 가지 점에서 그 근원을 밝혀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大學에서의 實用英語教育의 必要性

현행 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육과정은 중·고

등학교 6년간의 영어교육이 가장 바람직하게 잘 되었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런대로 괜찮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중·고등학교에서 이미 speaking과 reading 등 4技能의 기본실력이 잘 갖추어져 실용영어의 터전이 닦여져 있으면 대학에서는 이런 실용영어를 토대로 英美小說, 詩, 희곡, 중세문학 등 많은 작품을 통해서 문학을 음미해 나가고 변형문법, 의미론, 음운론 등의 이론과목을 원서를 통해서 강의해 나가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교까지의 영어교육이 어느 정도의 실용영어 실력 향상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가 문제이다.

최근 문교당국의 배려로 중·고등학교에서 청취력 테스트를 시도함으로써 우리나라 영어교육을 희망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같으나 아직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다. 우선 이 4技能을 정상 수준으로 끌고 가려면 대학입학 학력고사에서도 영어청취력 테스트를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고등학교에서 6년간 영어를 필수로 배우고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겠다는 학생이면 적어도 대학 입학시에는 어느 수준까지의 기본실력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입학 후에는 전공과목을 따라갈 수 있는 단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理想的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격차가 많다고 본다.

더구나 고교 졸업생들의 상당수가 대학의 학과를 지망할 때 자기가 닦은 전공학과에 대한 실력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학력고사 점수가 이 정도니까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지망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여 학과선택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입학 후 자기가 택한 전공학과와 적성이 맞지 않거나 기본실력의 부족으로 잘 따라 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예컨대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대신에 독일어나 일어, 또는 수학이나 국어를 더 잘 했던 학생들도 대학 입시에는 영어영문학과를 택한 나머지 4년 동안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겨우 학점 따기에 급급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까지는 따라갈 수 없게 된다.

또 반대로 상당수의 학생들은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할 때는 영어 실력이 평균 또는 상위권에 속했으나 입학 후 영어에는 별 관심이 없고 경제학이나 법학 등을 부전공으로 택해서 4년 동안 영어는 최소한의 학점만 따고 열성을 부전공쪽에 기울인 나머지 졸업할 때는 영어 전공자를 원하는 회사나 기업체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고교시절에 특수한 영어교육을 받은 극소수의 학생들은 예외이겠지만 대개의 경우 4가지 기능면에서 대학에서 더 가르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실력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대학의 교과과정 중 영어 회화, 영어실습, 강독, 영작문 등의 교과목은 적어도 1,2학년 때에 집중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현 시점에서 오늘날 사회가 요구하는 실용영어 실력을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外面할 수 없고 이를 이행해 나가려면 현행 영어영문학과와 교과과정 및 교수법의 재검토가 시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Ⅲ. 教科課程 및 教授要目的 問題點과 改善案

시대의 사회변천의 요구에 따라 해가 갈수록 실용영어가 강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교과과정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또는 커리큘럼 개선에 앞서 과연 대학의 영어영문학과와 교수 목적을 실용영어의 실력 배양에 중점적으로 둘 것인가 또는 실용영어를 치중하기보다는 교양지식을 넓히는 뜻에서 문학과 이론과목을 다루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문학전공 교수와 어학전공 교수간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한 같은 문학이나 어학전공 교수라 할지라도 개인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참고로 어학전공인 배양서 교수와 문학전공인 여석기 교수의 교과과정 운영 및 개선에 대한 견해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배양서 교수의 요지¹⁾

(1) 4技能의 기본 실력을 가르치는 실용영어와 영어학이나 영문학의 이론과목이 근본적

으로 다르긴 하지만 실용면과 이론면이 접하는 곳이 있다.

- (2) 일반 실용영어 교육이 이론과목 교육에 앞서야 하며 선필수가 되어야 한다.
- (3) 현행 문학 중심 교과과정을 4기능의 기초 훈련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최선책이다. 현재처럼 2, 3, 4학년에서 이론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실용영어를 가르치고 4학년에 이론과목을 가르쳐야 한다.
- (4) 차선책으로서는 현행 교과과정을 그대로 두되 각 과목의 운영에 있어서 실용영어 향상 방법을 모색한다: 이론과목을 영어로 강의함. 영문학 작품을 이학적 훈련만에 치중하여 영어학습과 문학수련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살려 나가야 한다.
- (5) 변형문법이론, 의미론, 생성음운론 같은 언어학 이론은 부당하며, 영문학이라기보다 철학, 역사, 심리학인 [英文學 text 外的인 것은 지양해야 한다. 졸업 후에는 문학이 아니라 영어로 취직해야 할 사람에게 번역관을 놓고 배경 설명에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 (6) 가급적 현대어, 현대문학을 다루는 것이 좋고 고전문학은 현대어로 쉽게 고쳐 쓴 책을 다루어야 한다.
- (7) 담당교수가 유창한 영어로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는 어학이나 문학이나 녹음된 토박이의 음성을 충분히 들려 주는 것이 좋다.

결론: 졸업 후 대개 회사로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어학이나 영문학 등 이론과목이 아니고 일반영어의 구사력이다. 따라서 영어와 영문 그 자체의 터득이 영어과의 중심 과제임을 깨닫고 문학 편중의 교과과정을 크게 수정하여 어학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여기서 어학이라 함은 언어학이 아니고 단편소설, 수필장독, 희곡, 시의 분석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2. 여석기 교수의 요지²⁾

- (1) 대학의 영어교육이 학문 연구와 교양을 위한 liberal education 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나친 실용영어 위주의 언어습득은 一次目標가 아니다.
- (2) 그러나 현 추세가 반드시 상기 목표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교재에서 교수방법에 이르기까지 재검토되어야 한다.
- (3) 영문학과 지망학생 중 75% 정도가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법학 등을 부전공으로 택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들은 영문학을 배우고 싶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차선의 방법으로 영문과를 택했다.
- (4) 따라서 Chaucer 나 Shakespeare 나 Milton 은 미술 생각이 없는 학생들에게 실용영어만 위주로 가르친다면 대학을 강습소나 연수기관으로 낙하시킬 심각성이 내재하고 있다.
- (5) 실용과목과 이론학전공 교과목의 영겨주춤한 共存관계를 정산하고 좀더 명확한 한계를 지워야겠다. 즉 영문학과와의 교과목 안에 영어강독, 영작문, 영어회화 등의 과목은 빼버리고 과에서는 이에 상응한 학생의 능력을 요구하면 그만이다.
- (6) 실용영어를 썩 잘하지 못하더라도 영문에 다닐 수 있다(영문학 공부를 통해서 영미 문화를 알게 하고 나아가 한국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서 양국간의 문화를 더 잘 알 수 있게 한다).
- (7) 철학과 역사는 물론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인류학, 예술학 등 주변의 학문 영역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兩教授의 요약에서 볼 수 있듯이 현사회와 시대의 요청에 따라 실용영어 위주의 교과과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배교수와 또 정반대로 대학교육은 실용적이기보다는 교양을 위한 아카데미즘을 중시해야 된다는 여교수의 견해가 서로 兩極을 달리하고 있다. 가장 理想的인 대학의 교과과정이 되려면 兩教授의 주장을 동시에 다 같이 충족시킬 수 있는, 즉 사회의 요구에 호응하여 실용영어의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나아가 문학작품을 통해 교양지식도 넓혀 나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여건이 이 양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는 형편이고 보편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던지 양쪽의 절충을 취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학은 현실의 사회요구나 취적문제와는 별도로 상아탑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곳으로서 실용적인 면보다 심오한 이론을 학문의 바탕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할 사람도 있겠으나 아카데미즘과 실용성이 병행해 나가야지 어느 한쪽만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中世英語나 Milton이나 Shakespeare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어전공 학생이라면 적어도 졸업하기 전에 한 학기쯤은 Chaucer나 Shakespeare 정도는 훑어 볼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기본적인 실용적인 실용영어의 실력이 없이 Milton이나 Shakespeare 작품을 읽히게 한다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英美人과의 communication이 전혀 필요 없었던 일제시대의 영어교육 같으면 4技能 중 듣기와 말하기는 전혀 무시해 버린 채 오직 문학수련을 위한 번역 위주의 독해력만 길러 나가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全世界가 하나의 地球村으로 좁아져 가고 영어가 국제 보조어로 등장한 오늘날 대학의 영어교육이 이를 外面할 수도 없게 되었고 외면해서도 안 될 것이다. 영어전공자가 회화력이 부족하여 英美人 또는 기타 영어를 아는 외국인과 對話를 할 수 없거나 커뮤니케이션이 이룩될 수 없다면 교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교양에 대한 정의는 견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문학 작품을 통해서만 교양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外國人과 對話를 할 줄 아는 그 自體가 現代人의 교양으로서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영어를 외국어로 가르치는 한국 각 대학의 영어영문과의 교과과정 및 교수과목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국이나 미국의 영문학과와 교과과정이나 교수요목과는 달라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의 독어과나 불어과의 교과과정 및 교수요목과 비슷하던지 또는 독일이나 불란서에 있는 영어과의 교과과정 및 교수요목과 비슷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이나 영국에서 유학하고 온 교수들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이들은 자기가 外國의 大學院에서 배웠던 교과목 중 一部를 우리나라 대학 學部에서 그대로 가르치는 일이 흔하다. 특히 영어학의 경우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영어

영문학과가 아닌 언어학과에서 가르치는 통사론이나, 의미론, 생성음운론 등의 이론과목을 한국에서는 영어과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 있다. 심지어는 영어와 전혀 관계 없는 것도 가르치고 있다.³⁾

이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의 영어교육 중에서 가장 잘못된 특징 중의 하나가 理論은 너무 앞서 있고 實用英語는 너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기초불어를 한 학기 수강한 적이 있다. 학급에서 週堂 3시간씩 月·水·金 격일제로 배우고 학급에서 한 시간 배우면 다음 시간까지 각자가 Lab에서 한 시간씩 그 교재를 토대로 복습하도록 되어 있었다. 교재에 나오는 dialogue는 다음 시간까지 반드시 집에서 외워 가야 한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Lab에서 복습하는 과정을 놓치거나 dialogue 암기를 못하는 상태로 다음 학급에 들어가면 잘 따라 갈 수가 없고 앞에 내세워 dialogue 연습을 시키는 데 창피를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각자가 혼자서 복습하는 실습이지만 테이프를 틀어 놓고 열심히 복습하게 되고 집에서도 dialogue 외우기 연습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한 학기만 하고 나도 기초회화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2년간 이런 식으로 4학기를 하게 되면 유창한 회화는 물론 상당한 수준의 독해력도 연마할 수 있게 되어 3년째부터는 쉬운 文學作品을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2,3학년에서 문학이나 어학의 이론과목을 가르치는 대신에 1,2학년 때에는 회화를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상당 수준의 독해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용영어를 배우게 하고 3학년 때에는 2년 동안 연마한 실용영어 실력을 토대로 소설, 희곡, 시 등의 작품을 통해 차원 높은 독해력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문학을 음미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영미소설이나 희곡작품을 가르친다면 그 작품을 음미하면서 한 학기당 代表作品을 몇 권씩 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 해석하다 보면 한 학기 동안 가르쳐도 소설 한 권을 끝내기는 커녕 불과 몇 페이지 정도로 끝나는 수가 허다하다. 일반 강독에 비해 문학작품은 어

휘수도 폭 넓고 관용어구도 자유자재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잘 파악하려면 사전에 상당한 기초실력이 있어야 따라갈 수 있다. 그러므로 2학년까지는 실용영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영문학개론, 영어학개론 등 기초과목을 영어로 된 교재를 통해서 독해력을 배양시키면서 전공에 대한 취미도 갖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3학년 때는 소설이나, 시, 희곡 등의 작품을 통해서 독해력을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문학을 음미케 한다. 그러나 너무 어려운 작가, 예컨대 James Joyce나 Henry James 등의 作品보다 Maugham, Dickens, Hemingway 등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작품들이 더 효과적인 것이다. 中世英語나 Milton, Shakespeare 등의 문학작품과 아울러 어려운 이론과목은 4학년 때에 각 한 학기씩 가르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필자는 작년에 모태학의 19世紀 英國小說이란 과목으로 된 모태학 학기말고사의 문제지를 보았는데, 영국소설 자체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없고 문제 자체가 우리 말로 되었는데 모두 Thomas Hardy의 사상, 그 시대의 배경, 작품(Tess)에 나타난 인물성격의 묘사 등에 관해서 우리 말로 적으라는 것이었다. 영어로 된 작품을 읽기보다 번역판이나 우리 말로 된 비평서적을 읽으면 답을 더 잘 쓸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그러니 강의시간 중에서도 무슨 내용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적어도 19世紀 英國小說이라면 代表作을 몇 권 읽게 하고 그 作品에 나온 단어나 독해력 테스트도 50%는 차지해야 할 것이다.

英詩나 희곡 등의 교과목도 이것들을 통해서 작품에 나타난 문학적인 배경이나 특징만 공부시킬 것이 아니라 작품을 통해서 영어 그 자체의 실력을 동시에 배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실용성을 살피서 가르쳐야 하며 문학 작품을 통해서 영어공부가 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가령 변형문법이나 영어발달사나 음성학 또는 음운론 등 실용영어와는 거리가 먼 理論科目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우리 말로 설명된 책들을 교재로 선정하기보다는 영어로 된 교재를 선정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론 자체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원서를 읽어 나갈 수 있는 독해력도 동시에 길

러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영문학이란 주로 영국 문학과 미국 문학의 두 영역을 뜻하니 이 중 어느 한 면만을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문학을 시대별, 작가별, 장르별(시, 소설, 희곡, 기타)로 세분하여 어느 일면만을 깊이 다루는 것도 문학 본질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대로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현 영어영문학도들이 갖추어야 할 실력을 고려한다면 배교수가 지적했듯이 될 수 있는 대로 현대 영어가 더 좋을 것이며 散文體가 더 좋을 것이다.

〈표 1〉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과과정 (전공교과)

학년	구분	교과목명	1 학기		2 학기		비고
			학점	시간	학점	시간	
1	전필	영 강 독 I	3	3			
1	"	영 강 독 I			3	3	
1	"	영 작 문 I	2	3			
1	"	영 작 문 I			2	3	
1	"	영 문 법	3	3			
1	"	영 회 화 I			2	3	
1	"	영언어실습I	2	3			
1	"	영미문학개론			3	3	
2	"	영 강 독 II	2	2			
2	"	영 강 독 II			2	2	
2	"	영 회 화 II	1	2			
2	"	영 작 문 II			1	2	
2	"	영언어실습II	2	3			
2	"	영언어실습II			2	3	
2	"	영어학개론	3	3			
2	"	영어음성학			3	3	
3	"	영어발달사	3	3			
3	"	영 회 화 작 문			3	3	
3	"	영교과교육론	2	2			
3	"	영교재연구 및 지도법			2	2	
3	전선	영 어 구 문 론	3	3			
3	"	영 어 의 미 론			3	3	
3	"	영 미 문학사	3	3			
3	"	시 사 영 어			3	3	
3	"	영 미 소설	3	3			
3	"	영 미 시 개 론			3	3	
4	"	영 어 학 특 강	3	3			
4	"	영 미 수 필			3	3	

그러니까 17世紀 作品들을 세분화하여 깊고 세밀하게 공부해 나가기보다는 17세기를 代表해서 Shakespeare 作品 중 어느 하나를 골라 읽게 하고 그 대신 현대소설 같은 것은 영국소설과 미국소설로 나누고 또 19세기와 20세기로 나누는 등 더 세분화시켜 독해력을 길러 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詩는 세분화하기보다 19세기와 20세기의 英美詩를 한 학기에 같이 다루어 나가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점에서 배양서 교수는 전국적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과과정의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는데⁴⁾ 이것도 아직 완전무결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시정해야 할 점이 남아 있다. 참고로 외국어대학교 교과과정을 소개하면 <표 1> <표 2>와 같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국어대학교의 영어교육과와 영어과의 교과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영어교육과는 영문학이나 이론과목을 최소로 한정시키고 나머지 시간을 실용영어에 활용한 듯하고 영어과는 문학과 어학을 半半 정도로 배열한 것 같고, 전공선택의 폭이 비교적 넓은 것 같다. 文學 중심으로 짠 일반 대학에 비해 실용영어를 중시한 듯한 인상이지만 이상적인 교과과정이 되려면 아직 수정해야 할 점이 있는 것 같다.

IV. 結 語

현 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이 실용영어를 위한 혁신적인 변화가 없는 한, 대학에서 실용영어 위주 교육이 불가피한 것 같다. 변천해 가는

<표 2> 서양어대학 영어과 교과과정

<전공교과>

학년	구분	교과목명	1 학기		2 학기		비고	학년	구분	교과목명	1 학기		2 학기		비고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1	전편	영 강 독 I	2	2				3	전선	영 어 발달 사			3	3	
1	"	영 강 독 I			2	2		3	"	영 어 음운론	3	3			
1	"	영 작 문 I	1	2				3	"	영 어 의미론			3	3	
1	"	영 작 문 I			1	2		3	"	영 어 구문론	3	3			
1	"	영 회 화 I	1	2				3	"	영 변 론			3	3	
1	"	영 회 화 I			1	2		3	"	언 어 학 개 론			3	3	
1	"	영 문 범 I	2	2				3	"	영 어 문 장 연 습	3	3			
1	"	영 문 범 II			2	2		3	"	미 국 시			3	3	
1	"	영 언 어 실 습 I	2	3				3	"	영 시	3	3			
1	"	영 언 어 실 습 I			2	3		3	"	영 미 수 필			3	3	
1	"	영 문 학 개 론	2	2				3	"	Shakespeare I (비극)	3	3			
2	"	미 문 학 개 론			2	2		3	"	Shakespeare II (사극·희극)			3	3	
2	"	영 강 독 II	2	2				3	"	18, 19C 영 소설	3	3			
2	"	영 강 독 II			2	2		3	"	19C 미 소설			3	3	
2	"	영 작 문 II	1	2				3	"	현대영미소설	3	3			
2	"	영 작 문 II			1	2		3	"	세 계 문 학			3	3	
2	"	영 회 화 II	1	2				3	"	주요 영국작가	3	3			
2	"	영 회 화 II			1	2		3	"	주요 미국작가			3	3	
2	"	영 언 어 실 습 II	2	3				3	"	영 국 사 정	3	3			
2	"	영 언 어 실 습 II			2	3		3	"	미 국 사 정			3	3	
2	"	영 어 학 개 론 I	2	2				3	"	시 사 영 어	3	3			
2	"	영 어 학 개 론 II			2	2		4	"	언 어 와 천 학			3	3	
2	"	영 문 학 사	2	2				4	"	영 국 회 곡	3	3			
2	"	미 문 학 사			2	2		4	"						
3	전선	영 어 학 사	3	3				4	"						
3	"	언 어 와 문 화	3	3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영어교육의 목표와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학교육의 근본이 상아탑 속의 진리탐구라 하지만 현실의 사회요구에 눈을 감을 수 없고 또 눈을 감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실용영어 수준까지 끌어 올리려면 영어영문학과와 교과과정이 대폭적으로 과감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그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원 뜻에 어긋나게 시행되는 수도 많으니 문학이나 이론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들도 될 수 있는 데로 실용영어 실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과목도 원서를 통해서 독해력을 향상시키면서 이론도 전달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

<註>

- 1) 배양서, “한국 대학 영어교육의 좌표”, 『영어교육』, (1983. 2.), 제25호, pp. 1~14.
- 2) 여석기, “外國語文學科 教科運營의 改善方案,” 『大學教育』, 제 5 호 (1983. 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pp. 49~51.
- 3) 배양서 (1983): “英文科 3학년용 위한 어학교재로 순 한국어의 예만 든 언어학 서적이 채택되는가 하면 英文科 석사논문 제목으로 “한국어 형용사”가 채택되어 논문이 통과되기도 하였다.”
- 4) 배양서, 전제서, p. 3.
“최선의 커리큘럼의 보기는 영어의 선기면을 중심 목표로 삼는 한국의국어대학 영어과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대학의 학과명이 영어학과가 아니고 영어과인 까닭은 영어문학의 이론이 아니고 영어의 구사능력을 기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기관의 설립자가 한 말)